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 성평등 ODA 10년의 성과와 전망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1. 들어가며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세계의 평화, 번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에 2020년 12월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를 개최하였다.<sup>1)</sup> 본 행사는 한국 국제협력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컨퍼런스, 우수사례, 전시,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컨퍼런스 세션에서 '한국 성평등 ODA 10년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세션에서 진행된 발표와 토론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세션 진행에 앞서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202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을 맞는 한국은 국제사회 증견 공여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짐과 동시에 성평등 분야의 ODA도 양과 질적으로 성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성평등 ODA는 전체 ODA 중 여전히 적은 비중에 불과하며, 성인지적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증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어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의 사회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 국제협력센터장과 KOICA 김선영 젠더전문관이 각각 한국 성평등 ODA 성과와 한국 성평등 ODA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에서는 국제보건개발 파트너스 이훈상 대표,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박민정 초빙교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HnD 이경주 부장이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1) 총 160여개의 기관이 참여한 동 포럼은 2020년 12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https://globalkoreaconvention.kr/home/kor/main/home.do> 참조)

## II. 포럼 내용

### 1. (발표 1) 개도국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ODA 정책의 발전과 성과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인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OECD 및 한국의 성평등 ODA 현황, DAC 가입 10년과 한국 성평등 ODA의 확대, 그리고 한국 성평등 ODA의 발전을 위한 제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ECD DAC 국가들의 전체 ODA 총액 대비 성평등 ODA의 비중은 2009~2010년 31%에서 2017~2018년 42%로 증가하였다.<sup>2)</sup> DAC 국가의 성평등 ODA는 젠더마커(gender marker)로 표기되어 OECD 통계 시스템에 보고되는데,<sup>3)</sup> 스웨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는 성평등 ODA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서 젠더마커 1과 2를 합친 규모가 전체 ODA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 또한 스페인과 호주의 경우에는 젠더마커 2 사업에 더 많은 양을 할당하여 원조를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권, 미디어 및 교육 부문에서 성평등에 대한 원조 비율이 높고, 환경·빈곤·경제 부문에서는 성평등 원조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력 분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지원 관련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성평등 ODA의 경우 2017년도에 비하면 그 액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OECD DAC의 평균인 42%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치이다.<sup>5)</sup> 또한 섹터 면으로도 재생산 건강에 치중되어 있어 한계를 보인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ODA 법과 정책에서 성평등 요소들을 포함해 왔다.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3조에서 ‘성평등 실현’을 명시하였고, 이어지는 기본 계획과 전략, 지침서에서도 성주류화를 이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양질의 성평등 ODA가 추진되었는지는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 ODA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효과적인

2) OECD DAC GENDERNET, 'Aid Focussed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 snapshot of current funding and trends over time in suppo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p. 10, <https://www.oecd.org/development/gender-development/Aid-Focussed-on-Gender-Equality-and-Women-s-Empowerment-2020.pdf>, 접속일자: 2021. 9. 23.

3) 젠더마커 1로 표기되는 사업은 성평등이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 목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목적으로 포함되거나, 주류화된 사업이다. 젠더마커 2로 표기되는 사업은 성평등 원조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목표이자 기획과 사업 성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목표인 경우이다. 젠더마커 0으로 표기되는 사업은 성평등 요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다.

4) OECD DAC GENDERNET, p.3, 접속일자: 2021. 9. 23.

5) OECD,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DONOR CHART', <http://www.oecd.org/development/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Aid-to-gender-equality-donorcharts-2020.pdf>, 접속일자: 2021. 9. 23.

실행 측면에 있어서는 실무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 성평등 ODA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성평등 ODA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성평등 ODA란 무엇이며, 향후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현재 '성평등 ODA'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조차도 함께 논의된 바가 없다. 아울러 성평등 ODA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성평등 ODA 관련 중점 분야 선정,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 예산 운용지침, 사업 조율을 위한 메커니즘 등을 명시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책 내 성주류화 강화, 성인지적 ODA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성평등 ODA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기관이 운영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성평등 ODA 센터(가칭)'을 설립함으로써 성평등 ODA 통계 관리를 비롯하여, 글로벌 트렌드 분석, 한국의 중점협력국의 젠더 프로파일 작성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Think Tank) 기능을 통해 성평등 ODA 전반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성평등 ODA 수행을 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평등 OD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나, 성평등 개념의 추상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사업실무자들 선에서는 성평등의 개념을 사업에 바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며, 인포그래픽과 동영상 등의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성평등 ODA 이행 방안을 확산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ODA 시행 기관에서의 성평등 내재화가 필요하다. 즉 성평등 ODA를 수행하는 기관 자체가 성인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조직 내 의사결정기구의 혹은 리더십의 여성 비율 증대,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성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정책 보유 등 ODA를 시행하는 조직 내에서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이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성평등한 결과들이 도출되기 어렵다.

## 2. (발표 2) SDG 5번과 KOICA의 성평등 ODA 모범사례

두 번째 발표자인 김선영 KOICA 젠더전문관은 KOICA와 성평등 전략과 KOICA의 성평등 사업사례를 소개하였다. KOICA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 이행계획으로 설정하였다. SDG 5번 달성과 '사회 변혁의 '주체' 양성을 통한 성평등 개발협력'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과제로 '공동번영 가치 창출을 위한 성평등 개발협력 사업 발굴,' '실질적 성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그리고 '다각적인 파트너와의 공조 및

연대를 통한 효과적 성평등 달성'을 제시하였다. 실행과제로는 성평등 ODA 사업 확대(젠더마커), 성평등 ODA 사업 형태 다각화, 성평등 사업 및 조직 성과관리체계 구축, '젠더와 개발협력' 역량강화 대상 확대, SDG5 달성을 위한 멀티파트너십 기반 플랫폼 구축 및 추진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사업을 확산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의 내재화가 중요하며 적극적인 국내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KOICA는 현재 'SDG5 Fill the Gap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이다. 동 이니셔티브는 성평등 ODA 중에서도 소외된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KOICA, UN Women, UNFPA와 3자 MOU를 시작으로 현재 9개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 사업의 중점 분야는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분야인 여성과 경제는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능동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여성 및 여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야인 여성과 인권은 젠더기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근본적인 성불평등 원인 제거를 통해 여성을 변화의 주체로 양성한다. 세 번째 분야는 성평등 정책수립 및 제도구축을 위한 성인지 역량 강화이다. 이를 통해 성주류화 정책 및 제도 수립 및 현대화가 가능하며, 성인지 통계시스템을 포함한 증거 기반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수행 관리자 및 담당자의 성인지교육과 성인지 행정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KOICA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젠더와 개발 무상원조 기관으로서, 성인지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왔다. 2009년 12월 이사장 직속 성인지 담당관 직제를 설립하였고 2019년 현재 29개 실에서 29명의 성인지 담당관을 지정, 성인지의 중요성을 기관과 사업 측면에서 단기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1년에는 사업에서의 성인지적인 관점과 분석을 포함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으며, 2010년부터는 젠더전문관을 채용하여 기관 사업과 대내외적으로 성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KOICA는 또한 다양한 성평등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10~2015년에 진행된 세네갈 식수 사업은 대규모 공사를 통해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깨끗한 식수 제공이 반드시 여성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였다. 즉, 깨끗한 식수 제공으로 여성과 여아의 여가시간은 증가하였지만, 이 시간이 반드시 교육의 기회 확대나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 문화적인 성불평등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여가시간의 증대가 여성의 권한 강화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성불평등한 힘의 역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가장 협조하였던 마을의 핵심 인물(남성)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배경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필리핀 강제 이주민 정착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 ‘스마일 타워빌’ 사업을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취업 및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의 경제 참여 확대와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소득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이 사업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했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여성들이었다. 봉제 기업 창업자, 조합원, 유치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 1,300명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집계되었고 훈련 수료생, 봉제관련 종사자, 지역 정부 관계자 및 리더 965명은 간접수혜자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 강제 이주당하고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불안하고 희망이 없던 상태로 살던 주민들이 해당 사업으로 인해 자신들이 만든 옷을 보면서 자신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런 성취감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런 사례를 통해 성평등 사업의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OICA는 ‘SDG5 Fill the Gap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동티모르에서 젠더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이니셔티브의 두 번째 중점 분야인 ‘여성과 인권’, 즉 폭력이라는 근본적인 성불평등의 제거를 통해 폭력피해자(victim)에서 생존자(survivor)로, 또 나아가 인권옹호가(human rights defender)로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여성의 양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성과 도출에 있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인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 시행 관리와 교환 도출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여성이 총 3단계로 변화하여(transformative approach)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변화시키는 주체(agent)로 성장하는 것이다.

### 3. 학계와 시민사회의 토론

이어서 이훈상 국제보건개발 파트너스 대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박민정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초빙교수, 그리고 이경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HnD 과장이 토론하였다.

이훈상 교수는 보건이나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별로 성주류화가 필요하고 인력양성, 국제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파트너십, 학계와 현장 중심의 사업과 연구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의 성평등 ODA는 제도적·구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다양한 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여성과 아동이 핵심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는 점,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이니셔티브,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최근 진행되는 Fill the gap 이니셔티브 등)은 매우 환영할만한 것이며, 이러한 각각의 노력들은 한국 성평등 ODA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OICA에서 성평등 ODA 전략을 구체화하여 수립한 점과 관련 사업들이 형성되어 추진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젠더기반 국제협력 성평등 ODA에 대한 양적 확대가 되는 것에 비해서, 성평등 ODA에 걸맞은 전문화된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더 많이 발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성주류화 방향 설정과 함께, 개별 섹터에서도 구체화된 성평등 ODA 실행전략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평등 ODA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적역량 구축과 확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민정 교수는 보다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현재 성평등 ODA를 위한 큰 틀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직 빈약하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성평등이 언급은 되어 있지만 한국이 추구하는 성평등이 무엇인지 모호하며,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만으로 제도적 틀을 갖췄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KOICA나 수출입은행도 젠더마커 기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결과 젠더마커로 집계 시 한국의 성평등 ODA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상원조의 분절화를 고려했을 때,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41개 기관 중 한 기관인 KOICA만이 성평등 OD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무상원조 35%를 담당하고 있는 나머지 무상원조 기관은 어떤 현실인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담당자들 중 일부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젠더마커 기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젠더마커 기입이 누락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록 한국이 성평등 ODA에 대한 철학이나 포괄적 계획은 미비하지만, 지난 10년 정도의 경험을 볼 때 재생산, 교육, 그리고 분쟁하에서의 성폭력 지원 분야가 주력 분야로 부상하였다. 한국이 우연치 않게 주력분야가 생기긴 하였지만,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철학을 넣어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성평등 ODA의 질적·양적 제고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젠더담당관을 채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ODA 관련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부처의 벽을 극복하려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의 젠더 ODA를 총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도에 젠더 담당관 제도를 수립하여 외교부 본부뿐만 아니라 전 재외공관에 젠더 ODA 담당관을 선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경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HnD 부장은 개발협력분야 그리

고 인도적지원 분야를 나누어 각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KCOC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CSO 편람에 의하면, 2007년 최초 발간 당시에는 성평등 혹은 젠더라는 단어는 한국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사업에 등장하지 않았으며, 재생산 관련 사업이 미미하게나마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 2017년을 지나면서 여성 관련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재생산·보건 사업은 한국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사업 중 1%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사업은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산 건강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사회 사업에서 성주류화를 증대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KOICA가 제도적으로 사업 내에서 성평등 요소를 요구하거나 필수 사항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시민사회는 풀뿌리 단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 여성 가장, 여아들을 만나는 현장 활동가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어 사업을 진행하려면 활동가들이 소속된 조직 자체도 성인지적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가 개인의 관심만으로는 성인지적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성인지 및 성평등 관련해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2~3년 안에 NGO들의 내부 지침에 safe guarding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 맥락에서의 성평등이나 젠더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인도적지원(분쟁 및 자연재해 상황 등)에서의 젠더 이슈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여성과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NGO들이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 III. 나가며

포럼을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SDG5 목표는 물론이고, 동시에 다른 16개 SDG에도 성주류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KOICA 내부에서도 성평등 전문가, ICT 전문가, 보건 전문가 등이 존재하며, 성평등 전문가는 성평등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ICT, 보건, 농촌 분야에 성주류화 노력을 해야 한다. 한 분야가 성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도 성주류화가 되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서로 교차되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와 사업 및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본 포럼을 마무리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성평등 ODA는 양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법적·정책적·전략적 기반이 수립되었고, ODA 총액 내 성평등 사업의 액수가 증가하였다. 성평등 ODA에 대한 수행 기관들의 인식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이 선진공여국에 걸맞은 양적 확대를 위해 질주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성평등 ODA에 대한 가치를 점검하고, 질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모든 참가자가 동의하였다. 현재 다양한 부처와 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성평등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하나로 통합되어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성평등 ODA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기를 관계기관에 촉구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 OECD DAC GENDERNET(2020), "Aid Focused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 snapshot of current funding and trends over time in suppo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https://www.oecd.org/development/gender-development/Aid-Focused-on-Gender-Equality-and-Women-s-Empowerment-2020.pdf>, 접속일자: 2021. 9. 23.
- OECD(2020),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DONOR CHART" <http://www.oecd.org/development/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Aid-to-gender-equality-donor-charts-2020.pdf>, 접속일자: 2021. 9. 23.